

蘇轍의 『奉使契丹二十八首』를 통해 본契丹에 대한 인식 小考*

장수현**

목 차

1. 서론
2. 使行을 떠나기 전 契丹에 대한 인식
3. 使行길에서의 契丹에 대한 인식
4.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北宋의 文人이자 政治家였던 蘇轍이 生辰使로 契丹에 가는 동안 使行길에서 남긴 「奉使契丹二十八首」를 통해 당시 北宋의 對外觀, 그중 契丹에 대한 蘇轍의 인식을 면밀히 탐색하여 북방 이민족 중 契丹에 대한 蘇轍의 시각을 살펴보고자 했다. 蘇轍이 契丹에 가기 전에 쓴 문장과 다녀와서 남긴 문장을 비교해보니 使行길에 오르기 전 蘇轍은 契丹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기 보다 되려 자신감과 우월감을 보이기도 했다. 使行길에 남긴 「奉使契丹二十八首」에서는 契丹에 대한 두려움이나 蔑視의 태도는 보이지 않고, 점차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려는 태도가 보였다. 다시 北宋으로 돌아와서 지내면서는 자신이 직접 북방에서 겪은 것들을 토대로 훨씬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 정치적 조언을 하였다. 이렇게 처음에는 契丹에 대해 蔑視의 태도를 보이다가 직접 契丹에 가서 보고 겪으니 이해의 태도를 보이게 되었고,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C2A02086852). 본 논문은 중국학연구회 제117차 정기학술대회(2022. 12.3)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하였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통번역학과 강사 및 중국연구소 NRF 몽중월연구단 전임연구원.

北宋으로 돌아와서는 이해에서 더 나아가 공존의 방법을 모색해 契丹에 대한 실용적인 정치적 제언을 하게 되었다.

키워드: 소철, 북송, 거란, 사행시, 사신

1. 서론

北宋(960-1127)의 對外 정책 중 북방 이민족과의 葛藤과 和議는 가장 큰 화두였다. 이는 국내 정치와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北宋은 기본적으로 文官의 德을 바탕으로 文治主義를 추구하였다. 이에 契丹, 西夏 등 이민족들에 대해서도 전쟁보다는 和議 政策을 주로 펼쳤다. 그중 北宋과 契丹은 澶淵之盟 이후, 기본적으로 약 120여 년 간 평화를 유지했다. 이러한 평화의 관계 속에서 北宋과 契丹은 서로 끊임없이 사신을 파견하여 소통하였고¹⁾, 이를 통해 상대국의 정세를 정탐하고 살피기도 했다.

蘇轍은 宋 仁宗에서 宋 徽宗까지 40여 년 동안의 관직 생활을 거치며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蘇轍이 남긴 대부분의 散文과 詩에서 문학적 재능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문장을 통해 그의 정치적 이상 및 사상을 펼쳐 정치가의 면모를 다분히 드러냈다. 특히 秘書省校書郎, 商州軍事推官, 河南留守推官, 右司諫, 御史中丞, 尙書右丞, 門下侍郎 등의 관직을 거치면서 크게 두 번의 폄적을 당하여, 지방과 중앙 관직 모두 경험하였고, 직접적으로 보고 겪은 것들을 자신의 문장을 통해 자신의 政見과 思想을 드러내었다. 北宋 초중반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분야의 폐단을 깊이 있게 제시하였고, 국정을 혁신하는 체계적인 주장과 爲政理念을 제시하였다.²⁾ 또한 이를 통해서 황제에게 훨씬 더 자신의 政見을 切直³⁾하면서도 實事求是한 내용을 담아 표현하였다.⁴⁾

1) 楊靜, 『北宋使遼詩研究』, 南京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3年, 11쪽: “宋遼在其共存期間曾共派使節388次, 其中澶淵之盟之後379次, 使節約1600餘人.”

2) 張秀賢, 『蘇轍散文研究』, 北京師範大學博士論文, 2022年, 172쪽 참고.

蘇轍은 元祐4년(1089년)에 吏部尙書가 되었고, 8월에 刑部侍郎 趙君錫과 함께 使臣으로 契丹의 황제 생신연에 가게 되었다.⁵⁾ 이때 契丹은 大安 5년(1089년)⁶⁾이었고, 道宗(야율홍기, 耶律洪基)의 생신연이었다. 蘇轍이 이 使行길에서 詩 28首를 남기게 되는데 바로 「奉使契丹二十八首」⁷⁾이다.

당시 使節의 임무에 따라 正旦使, 生辰使, 告哀使, 吊慰使, 祭奠使, 遺留使, 告登位使, 賀登位使, 回謝使, 接伴使, 館伴使, 送伴使 등이 있고, 일반적으로 황태후, 황제, 황후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러 가는 正旦使나, 황태후, 황제, 황후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가는 生辰使는 기본적으로 매년 파견하였다.⁸⁾ 北

- 3) 曾棗莊, 劉琳主編: 『全宋文』 卷一二二六, 司馬光 五五, 『蘇主簿夫人墓誌銘』, 第五十六冊, 287쪽. “轍所對語, 尤切直驚人.”; 張秀賢, 『蘇轍散文研究』, 北京師範大學博士論文, 2022年, 62쪽 참고. “就奏議文的創作而言, 蘇轍在分析事理上的出入經史, 縱論古今, 極言治亂興衰之要, 以忠悃之心, 寫切直之文.”
- 4) (宋) 蘇軾撰, (明) 茅維編, 孔凡禮點校: 『蘇軾文集』 卷四十九, 『答張文潛縣丞書』, 1427쪽: “蘇軾曾評價蘇轍的文章道: ‘子由之文實勝僕, 而世俗不知, 乃以爲不如. 其爲人深不願人知之, 其文如其爲人, 故汪洋澹泊, 有一唱三歎之聲, 而其秀傑之氣, 終不可沒.’”
- 5) 曾棗莊: 『蘇轍年譜』 卷十三, 成都: 巴蜀書社, 2018, 407쪽. : “蘇轍擔任翰林學士後不久, 八月十六日被命爲賀遼生辰使, 出使契丹, 趙君錫爲副使.”
- 6) 이계지 지음, 나영남 · 조복현 옮김, 『정복 왕조의 출현 : 요·금의 역사』, 2014. 329쪽, 부록 참고. : 大安(1085年-1094年)은 道宗인 耶律洪基의 연호이다.
- 7) (宋) 蘇轍著, 曾棗莊 · 馬德富點校, 『欒城集』 卷四十二,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393쪽-400쪽. 「奉使契丹二十八首」는 「次莫州通判劉涇韻二首」, 「贈知雄州王崇拯二首」, 「贈右番趙侍郎」, 「古北口道中呈同事二首」, 「絕句二首」, 「過楊無敵廟」, 「燕山」, 「趙君偶以微恙乘駝車而行戲贈二絕句」, 「會仙館二絕句」, 「出山」, 「奚君」, 「惠州」, 「神水館寄子瞻兄四絕」, 「木葉山」, 「虜帳」, 「十日南歸馬上口占呈同事」, 「傷足」, 「春日寄內」, 「渡桑幹」 28수이다.
- 8) 劉存明, 『北宋使北詩研究』, 青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6年, 21쪽-22쪽. : “由於出使任務的不同, 這些出使名目也各不相同. 主要有: 正旦使——祝賀鄰邦皇太后·皇上·皇后新年, 生辰使——祝賀鄰邦皇太后·皇上·皇后生辰, 告哀使——告知鄰邦本國皇太后·皇帝·皇后逝世消息, 吊慰使——吊慰對方皇太后·皇上·皇后, 祭奠使——去祭奠鄰邦皇太后·皇上或皇后, 遺留使——將本朝皇太后·皇帝·皇后的遺留物贈送給對方, 告登位使——告訴鄰邦新帝登基, 賀登位使——恭賀鄰邦新帝登基, 回謝使——答謝鄰邦吊賀, 接伴使——接待鄰邦使臣, 館伴使——鄰邦使者在接伴使的迎接下到達京師之後, 本朝另派人相伴, 送伴使——使命完成後, 送鄰邦使者至邊境, 一般由接伴使擔任, 泛使——突發事件臨時差遣)……一般情況下, 正旦使·生辰使基本上每年都會派遣, 其他則根據特定事件具體安排時間.”

宋에서 契丹으로 파견된 使臣들은 대부분 문인 출신들이었고, 使臣으로 契丹에 가는 과정에서 북방의 風土와 情景 등 보고 듣고 느낀 것들에 대한 것을 詩로 표현하여 남기기도 하였다. 宋祁, 韓琦, 王珪, 吳奎, 劉敞, 歐陽修, 范鎮, 沈邁, 蘇頌, 劉摯 등이 이러한 詩를 남겼는데, 그중 현재 18명의 318首가 남아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 18명의 문인들 중에 蘇轍의 詩가 현존하는 편수 중에 가장 많이 전해지고 있다.⁹⁾

일반적으로 北宋 문인들이 使行詩에서 그려낸 契丹에 대한 관점 및 감정은 대부분 다분히 주관적이면서도 배타적이고, 동시에 부정적인 면을 담고 있다.¹⁰⁾ 이에 과연 蘇轍은 「奉使契丹二十八首」를 통해 契丹에 대해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졌다. 왜냐하면 소철이 「奉使契丹二十八首」를 썼던 시기는 그가 정치가로써도 가장 힘이 있고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때였고, 이에 황제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직언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기에, 정치적으로 여러 제언을 과감하게 썼고,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증거를 들어 實事求是적인 것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이 시기 蘇轍의 문장 속에서 契丹에 대한 의견을 분석해보는다면, 당시 北宋 여타 문인들의 일반적인 편협적인 시각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직접적이며 契丹에 대해 좀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奉使契丹二十八首」를 통해 契丹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훨씬 직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蘇轍이 使臣으로 契丹에 가는 길에 남긴 「奉使契丹二十八首」를 통해 蘇轍의 契丹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9) 劉存明, 『北宋使北詩研究』, 青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6, 25쪽: “北宋從建國之初到走向滅亡, 基本上一深受北方強大遼政權的威脅, 所以在北宋統治期間, 其與遼的聯繫也最爲密切. 在此期間, 北宋曾派遣大批使臣出使遼國, 留下了大量的有關詩作. 據統計, 現今有詩作留下的有 18人, 317首詩與1散句.”

10) 劉存明, 『北宋使北詩研究』, 青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6, 25쪽-46쪽 참고.

2. 使行을 떠나기 전 契丹에 대한 인식

우선 蘇轍이 使行길에 오르기 전 契丹에 대한 생각은 回河¹¹⁾와 관련하여 황제에게 올린 劄子 1편과 蘇軾이 蘇轍에게 보낸 詩에 蘇轍이 답한 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蘇轍이 哲宗(1077-1100)에게 올린 回河 문제¹²⁾에 관한 여러 편의 劄子¹³⁾ 중 직접적으로 契丹을 언급한 것은 「再論回河劄子」¹⁴⁾이다. 「再論回

11) 이하 본고에서 ‘回河’는 신종과 철종시기 끊임 없이 일어났던 ‘回河之爭’에서 黃河의 물길을 돌리는 것을 지칭한다.

12) 北宋(960-1127)은 역사상 黃河 통치에 있어 중요한 시기였다. 北宋 시기 黃河의 재해가 전례없이 가중되어, 168년 중 역사 기록에 남은 재해가 60여 년에 달했고, 黃河의 물길의 변화가 끊임없이 있었다. 이 시기 수도 開封은 黃河의 하류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黃河의 물길을 잘 다스리느냐 마느냐는 통치 집단에 직접적으로 직결된 문제였다. 이에 표면적으로는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해, 또는 나라의 국익을 위해 治河가 매우 중요했고, 내면적으로는 黃河의 범람의 위치를 어느쪽 방향으로 삼느냐에 따라 정치적 이권을 잡을 수 있었기에, 이는 治河로써 백성을 이롭게 하는 實事求是적 효과보다 新舊法黨의 정치적 이권 다툼으로 변질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 黃河의 治河의 문제는 北宋과 마주하고 있던 이웃 이민족들과의 정치 군사적 관계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 중 契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이에 黃河의 治水문제에 있어서도 여타 관리들은 줄곧 여러 관계 및 자신들의 이권을 생각해서 인위적인 回河를 주장하였고,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遼의 침략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비쳤다. 元祐8년(1093년), 철종이 親政을 하고, 新黨이 복귀하고, 紹聖 원년(1094년), 新法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서 汝州로 폄적당하기 전까지 蘇轍은 哲宗에게 끊임없이 奏議文을 올려 직언을 하였다. 그 중 黃河의 治水문제로 물길을 돌릴 것인가 그대로 둘 것인가는 여러 대신들과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문제였다. 蘇轍이 올린 여러 奏議文 중 戶部侍郎 역임시기 時事를 논한 6편의 劄子 중 3편이 回河문제를 논한 것이었고, 翰林學士 재직시절 時事를 논한 9편의 劄子 중 2편이 전에 논한 回河 문제를 다시 언급한 것이었다. 蘇轍은 北流도 東流도 아닌, 물길을 그대로 두자는 의견을 내비친다. 즉, 蘇轍은 인위적인 回河를 반대했다. 실은 처음 인위적인 回河를 반대할 때만 해도 契丹의 입장을 고려해서 주장한 의견이었다기보다 北宋의 정치, 경제, 군사방면에서 실질적 이익을 위해 물길을 돌리는 것을 반대했던 蘇轍이었지만, 이후 직접적으로 契丹에 대한 문제를 언급할 때도 여타 문인들과는 달리 契丹을 두려워해서 回河를 논한 입장이 아니었다. 되려 契丹에 대한 우월감과 자신감으로 輕視를 하는 태도를 보였다.

13) 「論開孫村河劄子」, 「再論回河劄子」, 「三論回河劄子」, 「論黃河必非東決劄子」, 「乞罷

河筭子」¹⁵⁾를 보자.

臣이 요즘 듣자옵건대 ‘朝廷에서 의논하여 黃河의 물길을 돌리는 일은 중지하였으나 내년엔 응당 役兵을 써서 인공으로 減水河나 入海河를 개척하여 물을 분산시킬 것이다.’라고 합니다. …… 옛날 眞宗皇帝께서는 직접 澶淵에 가셔서 契丹을 격파하고 그들의 敗亡을 틈타 그들과 화친을 맺었으니, 이후로 河朔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지 못한 지 거의 1백년이 되었습니다. 陛下께서 생각해보시면 이것이 어찌 유독 黃河 덕분이었겠습니까? 옛날 石晉이 패할 때에는 黃河가 동쪽에 흐르고 있었지만 패하였고, 祥符 以來로는 河南에만 虜憂가 없을 뿐 아니라 河北에도 스스로 兵患이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夷狄(契丹)과 結交한 것은 진종 황제께서 배운 仁德의 정치의 영향임을 볼 수 있을 뿐이지, 天地 자연의 본성을 거역하고 낮은 지대로 흐르는 河水를 끌어서 높은 지대로 올리며, 막대한 역사를 일으켜 이를 수 없는 공을 바라고 험지를 조성할 계책으로 삼았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 비록 후일에 黃河를 다시 북쪽으로 옮겨가게 한다 하더라도 虜의 땅은 날마다 줄어들고 우리 토지는 날마다 늘어날 것이니, 그 憂患거리는 정작 契丹에 있을 뿐인데, 大臣의 잘못된 계책은 中國의 걱정거리로 삼고 드디어 民力을 총동원하여 黃河를 동쪽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려고 하니, 契丹을 위한 謀劃면에서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도 우리 朝廷을 위한 염려 면에서는 소홀하기 그지 없습니다. …… 설령 虜中에서 드디어 이 다리를 놓는다 하더라도 黃河의 上流가 모두 우리 땅에 있으니, 만일 沿河州郡이 戰艦을 많이 제작함과 동시에 군사를 양성하고 군량을 모아서 河流를 따라 내려간다면 長艘 巨纜을 햇불 하나로 모조리 태워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형세상 제한을 받고 있으니, 저들은 장차 스스로 중지할 것입니다. ……¹⁶⁾

글 전체에서 알 수 있듯 契丹을 두려워해서 물길을 돌리자는 말이 아니라

修河司筭子」

14) (宋) 蘇轍著, 曾棗莊·馬德富點校: 『欒城集』 卷四十二, 『再論回河筭子』,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393쪽-396쪽.

15) (宋) 蘇轍著, 曾棗莊·馬德富點校: 『欒城集』 卷四十二, 『再論回河筭子』,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393쪽-396쪽.

16) (宋) 蘇轍著, 曾棗莊·馬德富點校: 『欒城集』 卷四十二, 『再論回河筭子』,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393쪽-396쪽.

中原의 국익을 위해서, 즉 물길을 인위적으로 돌리는 행위 자체가 백성들에게 부역을 안겨주는 일이고, 재정적으로 국가적 재산을 낭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北流도 東流도 할 필요가 없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면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른 문인들이 물길을 인위적으로 돌리자고 주장하는 여러 이유들 중 契丹의 침략을 걱정해서 물길을 인위적으로 돌리자고 주장하는 것도 있는데, ‘설령 虜中에서 드디어 이 다리를 놓는다 하더라도 黃河의 上流가 모두 우리 땅에 있으니, 만일 沿河州郡이 戰艦을 많이 제작함과 동시에 군사를 양성하고 군량을 모아서 河流를 따라 내려간다면 長艘 巨纜을 헛불 하나로 모조리 태워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한 문장에서 알 수 있듯, 蘇轍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찌하면 契丹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되려 契丹에 대한 자신감과 우월감이 느껴진다.

이 「再論回河筭子」는 元祐 3년(1088년) 11월 12일에 哲宗에게 올린 筭子였다.¹⁷⁾ 아직 契丹으로 떠나기 전 쓴 글이었다. 그리고 蘇轍은 使臣으로 임명된 뒤, 出使 직전 형 蘇軾과 나누는 작별 인사에서도 契丹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었다. 우선, 元祐4년(1089년) 蘇軾이 「送子由使契丹」¹⁸⁾을 蘇轍에게 보내 出使에 대한 걱정을 내비쳤다.¹⁹⁾

雲海相望寄此身, 너와 구름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나는 여기에
있기에
那因遠適更沾巾. 먼길을 떠난다 해도 더 눈물을 흘릴일 없지만
不辭驛騎凌風雪, 눈보라의 위험을 불사하고 사절로 가는 것이니
要使天驕識鳳麟. 조정에서 골라 보낸 인재란 걸 보여주거라

17) 曾棗莊：『蘇轍年譜』卷十三，成都：巴蜀書社，2018，395쪽.：“元祐三年(一〇八八)戊辰 五十歲，……十一月甲辰(初二日)，上「論開孫村河子」·「再論回河筭子」·「三論回河筭子」.”

18) (宋)蘇軾 撰，(清)王文誥 輯注，孔凡禮 點校：『蘇軾詩集』卷三十一，北京：中華書局，1982，1647쪽.

19) 曾棗莊：『蘇轍年譜』卷十三，成都：巴蜀書社，2018，413쪽.：“離京師赴遼，賀遼道宗(耶律洪基)生辰。兄軾有送行詩，轍次韻。至滑州，晤魯有開(元翰)。轍離京師，十月事。《蘇軾詩集》卷三十一有《送子由使契丹》詩。末雲：「單於若問君家世，莫道中朝第一人。」頗自負。有《次韻子相送使胡》，見《集》卷十六。首雲：「朔雪胡沙試此身。」任重道遠。”

沙漠回看清禁月, 사막에서 달을 보며 미련이 남아 도성의 달을 돌아볼
 것이고,
 湖山應夢武林春. 꿈에서 보는 호수와 산은 모두 무림산의 봄 풍경일게다.
 單於若問君家世, 혹시라도 單於가 집안에 대해 묻거든
 莫道中朝第一人. 中原 제일가는 문장가라는 그 말만은 하지 마라.

이 시의 구절 전체 모두 동생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그 중 ‘不辭驛騎凌風雪, 要使天驕識鳳麟(눈보라의 위협을 불사하고 사절로 가는 것이니, 조정에서 골라 보낸 인재란 길 보여주거라)’와 같이 볼 수 있듯, 蘇軾 또한 蘇轍에 대한 그리움을 전하면서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도 담아냈고 동시에 증책을 맡은 동생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도 썼다. 그리고 宋의 위엄을 지키면서 기개를 보여주고, 겸손하면서도 자만하지 말기를 당부했다. 사실 ‘莫道中朝第一人(中原 제일가는 문장가라는 그 말만은 하지 마라)’라고 한 것은 당시 실제로 契丹으로 사신의 길에 올랐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여럿 있었기에 동생이 文章家로서의 뛰어난 면모를 契丹에게 보여주게 되면 契丹의 사람들이 인재인 동생을 알아보고 그를 붙잡아서 中原으로 돌아오지 못할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이는 어쩌면 한편으로는 契丹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宋이 연약한 외교관계를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한 실망과 유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에 蘇軾이 次韻해서 蘇軾에게 보낸 「次韻子瞻相送使胡」²⁰⁾를 보자.

朔雪胡沙試此身, 북쪽 땅의 눈 덮인 사막 이 몸을 시험하고,
 靑羅便面紫狐巾. 푸른 비단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야생 여우 목도리를
 돌렸다.
 擁旄代北隨飛雁, 호위하는 깃발을 들고 代州의 북쪽(西京道)에서 기러기
 를 따라 날아가는데,
 頓足江東有臥麟. 발로 땅을 구르니 강동에 臥麟이 있다.
 欺酒壺冰將送臘,臘日을 보내는데 술 주전자가 얼어있고,

20) (宋) 蘇軾著, 曾棗莊·馬德富點校: 『樂城集』卷十六, 『次韻子瞻相送使胡』,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392쪽.

照溪梅萼定先春. 시냇가에 매화 꽃받침이 비추니 봄이 이미 왔다.
漢家五餌²¹⁾今方驗, 지금 마침 漢의 五餌를 검증하고 있는데,
更愧當年歎息人. 그 해의 賈誼에게 부끄럽네.

시 전체 구절에서 契丹과 中原의 情景를 대비시켰고, 이로 인해 契丹으로 떠나기 전에 이번 使行길이 멀고 험난할 것이라는 불안한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다소 직관적으로 드러내었다. 북방의 날씨를 극한의 추위로 표현했는데, 契丹의 눈과 얼음이 가득한 모습과 中原의 매화꽃이 만연한 경치를 서로 대비시켰다. 이렇게 契丹에서의 생활 환경이 어렵다고 표현하였고, 契丹의 境內에 사는 中原 백성들의 고난에 대해 걱정을 드러낸 동시에, 이러한 불모지에서 出使 임무를 완수하고 北宋의 국격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 契丹에 대한 北宋의 정책에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宋과 契丹은 이때 이미 澶淵之盟을 체결하여 평화로운 시기였지만, 이로 인해 儒家의 사상을 따르면서 오랑캐의 저급한 문화가 중원의 우월한 문화를 망치기 때문에 방어해야 한다는 ‘夷夏之防’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문인들은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다. 蘇轍은 이를 반어법으로 표현했는데, 표면적으로는 宋이 賈誼가 처음에 돈으로 匈奴 사절을 매수했던 것을 본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굴욕적인 강화 조약과 돈으로 평화를 산 것은 賈誼가 돈으로 匈奴를 매수하여 마음을 돌린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한 것이다. ‘歎息人’²²⁾이라는 말에 부끄럽다는 것은 宋의 조정의 처사에 수치심을

21) 漢代 賈誼가 『新書·匈奴傳』에서 밝힌 흉노를 회유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한 다섯 가지 조치를 가리킨다: 『新書·匈奴傳』: “以金帛賜匈奴降人, 以吸引匈奴歸化; 以美食賜匈奴使者, 以壞其口; 以歌姬樂舞賜匈奴使者, 以壞其耳; 以豪奢之家賜匈奴使者, 使其忘掉舊主; 以錦衣繡服帝王隆恩對待匈奴使臣, 以壞其心.”; 班固: 『漢書』卷48 『漢書·賈誼傳』, 中華書局, 1962, 2265쪽.: “劉向稱‘賈誼言三代與秦治亂之意, 其論甚美, 通達國體, 雖古之伊管未能遠過也. 使時見用, 功化必盛. 爲庸臣所害, 甚可悼痛’. 追觀孝文玄默躬行以移風俗, 誼之所陳略施行矣. 及欲改定制度, 以漢爲土德, 色上黃, 數用五, 及欲試屬國, 施五餌三表以系單於, 其術固以疏矣. 誼亦天年早終, 雖不至公卿, 未爲不遇也.”

22) ‘嘆息人’은 賈誼를 가리키는 말이다. 賈誼가 쓴 『上疏陳政事』에서 한나라의 흉노에 대한 정책에 세 번 탄식하고(三次嘆息), 세 번 눈물을 흘린(三次流涕) 賈誼를 ‘嘆息人’이라

느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²³⁾

使臣으로 간 文人들의 대부분의 詩에서 이러한 좁고 처량한 國境의 風景과 北宋의 對遼 정책에 대한 좋지 않은 태도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蘇轍이 쓴 「次韻子瞻相送使胡」는 出使 전에 썼기에 경치에 대한 묘사는 모두 상상으로 그려낸 것인데, 이때는 아직 북방의 풍경, 기후, 문화를 몸소 체험하기 전이었기에 훨씬 더 편견을 가지고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契丹의 혹독한 추위에 대한 묘사는 中原의 정통왕조, 宋이 上國이라는 맹목적인 자부심, 그리고 오랑캐에 대한 뿌리 깊은 輕視에서 비롯되었다. 시에서 인용한 ‘五餌’의 고사는 蘇轍이 은연중에 宋과 遼의 관계를 漢과 匈奴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은연중에 契丹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내었다. 이는 蘇轍을 비롯한 北宋의 文人들이 잠재의식 속에 강대국 우월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며, 우월감과 크게 대조되는 것이 바로 宋이 군사적으로는 契丹에 비해 약했다는 것이다.

宋의 땅이었던 북쪽 변방의 경치를 마주하여 이를 詩에 담아낼 때, 唐의 邊塞詩에서 보았던 기이함과 웅장함으로 그려내지 않았고, 북방의 냉혹함과 처참함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契丹이 漢族의 땅을 유린한 것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쓴 것이 北宋의 使臣詩에 비일비재하다. 대부분 契丹의 좁고 황량한 모습을 먼저 쓰고, 出使하여 敵國에서 지내는 오랜 기간 동안 지조를 지키겠다는 자신의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 蘇轍도 出使 전에는 위에서 본 것처럼 契丹의 정경을 차갑고도 황량하게 그려내면서 그러한 상실의 땅에서 겪을 자신의 고통을 표현했다. 이렇게 떠나기 전에 형 蘇軾과 작별인사를 하고, 점점 契丹에 깊이 들어가면서, 점점 낮선 敵國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契丹에 이러한 태도를 보였던 蘇轍이 이듬해 契丹에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하게 되면서 契丹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바뀌게 된다. 使行길 도중에 쓴 28편 속에서도 종종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내 곧 바뀌게 된다. 그러면서 詩에서도

고 하였다.

23) 王文科, 「論蘇轍的使遼詩」, 河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5, 第二期, 7쪽 참조.

변화가 생겼다. 詩 속에서 긍정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사실적인 묘사로 契丹의 생활과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고, 契丹에 대한 경계의 마음이 점차 열어졌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로 경물을 그릴 때도 변화가 생겼다.

3. 使行길에서의 契丹에 대한 인식

蘇轍은 元祐4년(1089년) 8월16일에 使行길에 올랐다.²⁴⁾ 莫州에 도착하여, 晤州 通判 劉涇을 만나게 되었는데, 劉涇이 詩를 써서 蘇轍에게 주었고, 蘇轍이 그에 次韻하여 「次莫州通判劉涇韻二首」²⁵⁾를 썼다. 더 北上하여 雄州를 지날때 王崇拯에게 「贈知雄州王崇拯二首」²⁶⁾를 써주었다. 그리고 나서 점점 北上하면서 古北口, 白溝驛를 지나 遼境에 도착했고, 桑干河를 지나 燕山을 지나면서 「贈右番趙侍郎」, 「古北口道中呈同事二首」²⁷⁾, 「絕句二首」, 「過楊無敵廟」, 「燕山」²⁸⁾, 「趙君偶以微恙乘駝車而行戲贈二絕句」²⁹⁾, 「會仙館二絕句」³⁰⁾를 썼다. 그리고 中京의 남쪽, 奚人들이 모여 사는 곳도 지나게 됐다. 이때 「出山」³¹⁾, 「奚君」을 썼다. 그리고 惠州에 이르러 「惠州」³²⁾를

24) (宋) 李燾撰, 上海師範大學古籍整理研究所·華東師範大學古籍整理研究所點校, 『續資治通鑑長編』, 北京: 中華書局, 2004.:“(元祐四年八月)刑部侍郎趙君錫翰林學士蘇轍爲賀遼國生辰使.”; 曾棗莊: 『蘇轍年譜』卷十四, 成都: 巴蜀書社, 2018, 407쪽.: “元祐四年(一〇八九)己巳……八月癸醜(十六日), 刑部侍郎趙君錫翰林學士蘇轍爲賀遼國生辰使.”

25) 曾棗莊: 『蘇轍年譜』卷十三, 成都: 巴蜀書社, 2018, 413쪽.: “至莫州, 晤州通判劉涇. 涇作詩, 轍次韻.”

26) 曾棗莊: 『蘇轍年譜』卷十三, 成都: 巴蜀書社, 2018, 414쪽.: “過雄州, 贈知雄州王崇拯詩.”

27) 曾棗莊: 『蘇轍年譜』卷十三, 成都: 巴蜀書社, 2018, 415쪽.: “古北口道中, 作詩呈同事趙君錫高遼國·朱伯材.”

28) 曾棗莊: 『蘇轍年譜』卷十三, 成都: 巴蜀書社, 2018, 415쪽.: “離燕京, 過西山.”

29) 曾棗莊: 『蘇轍年譜』卷十三, 成都: 巴蜀書社, 2018, 414쪽.: “過白溝驛, 至遼境. 過桑乾河. 抵燕京.”

30) 曾棗莊: 『蘇轍年譜』卷十三, 成都: 巴蜀書社, 2018, 416쪽.: “行燕山之中, 趙君錫以小疾乘駝車而行, 過會仙館, 出燕山. 均有詩.”

썼고, 神水館에서 형 蘇軾에게 4편의 시 「神水館寄子瞻兄四絕」을 써서 보냈다. 木葉山을 지나 마침내 中京에 도착했고, 遼 道宗(1032年-1101年)의 생신 연에 참여했다. 이 때 「木葉山」, 「虜帳」을 썼다. 10여일 간 머무른 후³³⁾ 12월 10일, 남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 때 「十日南歸馬上口占呈同事」를 썼다. 그리고 남하하는 도중 「傷足」, 「春日寄內」, 「渡桑幹」³⁴⁾을 썼다.

이렇게 蘇轍이 使行 길에 남긴 28편의 詩에서는 점점 北上하면서 그려낸 情景, 관리들의 환대, 使臣들 간의 일상적인 교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우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있다.

北宋 사람들은 澶淵之盟이후 契丹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³⁵⁾ 蘇轍도 마찬가지였다. 契丹에 使臣으로 파견을 갔던 다른 문인들과 마찬가지로 蘇轍은 出使 전후와 出使 도중 보고 들은 것을 묘사함으로써 敵國에 대한 증오, 본래 北宋의 땅이었던 領土를 빼앗긴 것에 대한 슬픔, 그리고 使臣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책임감 등을 표현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契丹의 情景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냈는데, 이러한 情景 묘사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 즉, 契丹 땅을 처음에는 좁고 처량하고 낙후된 곳으로 그렸다가 나중에는 따뜻하고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표현하게 된다.

먼저, 古北口를 지날때, 「古北口道中呈同事二首」³⁶⁾를 썼는데, 이곳은 산

31) 曾棗莊：『蘇轍年譜』卷十三，成都：巴蜀書社，2018，417쪽.：“至中京之南，訪奚人所居。”

32) 曾棗莊：『蘇轍年譜』卷十三，成都：巴蜀書社，2018，418쪽.：“至惠州。十一月二十六日，在神水館，作詩寄軾。經木葉山，至中京，賀遼主生辰。”

33) (宋) 蘇轍著，曾棗莊·馬德富點校：『欒城集』卷四十二，『渡桑幹』，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9，400쪽.：“會同出入凡十日。”

34) 曾棗莊：『蘇轍年譜』卷十三，成都：巴蜀書社，2018，422쪽.：“南歸。正月十日，馬上口占呈同事。”

35) 曾棗莊：『蘇轍年譜』卷十三，成都：巴蜀書社，2018，422쪽.：“途中傷足，行燕山，渡桑幹。”

36) 이석현, 「전연의 맹의 성립과 송인의 인식」, 『동북아논총』 2009, 제26호, 190쪽 참고.

세가 가파르고 만리장성의 요새의 하나로서 北宋과 북방 이민족간의 경계에 있는 곳이었다. 「古北口道中呈同事二首」其二에서 ‘日暖山蹊冬未雪, 寒生胡月夜無雲. 明朝對飲思鄉嶺, 夷漢封疆自此分.’(햇볕 따뜻하고 산간에도 겨울 눈이 내리지 않으며, 추운 북쪽 겨울 밤에는 달빛이 비추고 밤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네. 내일 아침에 마주 앉아 술을 마시며 「思鄉嶺」을 부르리, 夷와 漢의 경계는 여기서부터 갈라졌구나)³⁷⁾라고 했는데, 이곳이 비록 변방이긴 하지만, 강남 같은 모습이 꽤나 느껴지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물이 흐르는 것이, 작자 스스로 고향과 매우 비슷하다고 느껴 「思鄉嶺」도 부른다.

「絕句二首」其一에서는 ‘亂山環合疑無路, 小徑縈回長傍溪. 仿佛夢中尋蜀道, 興州東穀鳳州西.’(산으로 어지러이 둘러싸여 있어 길이 없나 하고, 오솔길 빙빙 돌며 길게 시냇물을 끼고 있다. 마치 꿈속에서 蜀道를 찾는 것처럼, 興州 東穀 鳳州 서쪽을 찾는 것 같다.)³⁸⁾라고 했는데, 興州·鳳州는 宋과 契丹에 둘 다 존재하는 곳이다. 契丹의 興州는 東京道에 속하며, 契丹 東京 東北에 있다. 鳳州는 上京道에 속하며, 契丹 上京 東北에 있다. 그리고 宋의 興州는 利州路에 속하며, 鳳州는 秦鳳路에 있다. 兩州 모두 蜀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다. 蘇轍은 遼境에서 北宋과 같은 도시 이름을 보면서, 고향 생각에 젖었다. 이 「絕句二首」其一 속의 遼境의 모습은 「次韻子瞻相送使胡」에서 묘사한 契丹의 情景과 다르다. 비록 첫머리에서 여전히 황량함을 드러내었지만, 이어서 ‘小徑縈回長傍溪(오솔길 빙빙 돌며 길게 시냇물을 끼고 있다.)’라고 쓰면서 「次韻子瞻相送使胡」에 썼던 시 속에서 契丹의 풍경을 묘사한 장면에서 느껴졌던 추위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다. 은연 중에 契丹에 대한 인상이 바뀌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絕句二首」其二³⁹⁾을 보자.

37) (宋) 蘇轍著, 曾棗莊·馬德富點校: 『欒城集』卷十六, 『古北口道中呈同事二首』,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394쪽.

38) (宋) 蘇轍著, 曾棗莊·馬德富點校: 『欒城集』卷十六, 『絕句二首』,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394쪽.

39) (宋) 蘇轍著, 曾棗莊·馬德富點校: 『欒城集』卷十六, 『絕句二首』,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395쪽.

日色映山才到地, 햇빛이 산을 비추고 드디어 땅에 도착했는데,
 雪花鋪草不曾消. 눈송이가 풀밭에 깔려 사라지지 않았다.
 晴寒不及陰寒重, 춥긴 하지만 陰寒이 가득할 정도는 아니고
 攬篋猶存未著貂. 상자를 잡아당겨보니 아직 담비가 없구나.

여전히 契丹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使行길에 오르기 직전에 지은 것에 비해 극도로 춥고 처량하게 그린 장면도 없고, 적대심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극단의 추위를 예상했는데, 극단의 추위까지는 아니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스스로 과장하여 억측하였던 契丹의 풍경을 직접 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契丹의 사람들, 특히 일반 백성들을 실제로 접한 후, 점차 적대심이 사라지고 契丹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會仙館二絕句」其一⁴⁰⁾를 보자.

北嶂南屏恰四周, 北嶂山과 南屏山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고,
 西山微缺放溪流. 西山에는 약간 부족하지만 계곡물이 흐르네.
 胡人置酒留連客, 胡人들은 술자리를 열어 손님을 머무르게 하니,
 頗識峰巒是勝遊. 이어진 산봉우리 빼어난 유람지임을 자못 알겠네!

이 시에서 처음으로 ‘勝遊(즐겁게 유람하다)’라고 하면서 遼의 情景를 감상하고 묘사하여 썼다. ‘北嶂南屏(北嶂山과 南屏山)’, ‘西山微缺(西山에는 약간 부족하다)’등의 표현에서 볼 수 있듯, 차갑고도 처량하게 풍경묘사, 거부감, 우울함, 즐겁지 않은 마음과 같은 것들은 이미 찾아볼 수 없다. 사실 처음 使行길을 막 떠났을 때와 그렇게 많이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었기에 契丹의 기후와 풍경은 변한 것이 없다. 다만 작자의 마음이 바뀌었을 뿐이다. 그리고 ‘胡人置酒留連客(胡人들은 술자리를 열어 손님을 머무르게 하니)’라고 하면서 이민족에게 감동을 받은 것도 표현하였다. 이처럼 태도가 조금은 부드러워진

40) (宋) 蘇轍著, 曾棗莊·馬德富點校: 『樂城集』卷十六, 『會仙館二絕句』,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394쪽.

것이 보인다. 여전히 벽이 존재하긴 하지만, 거부감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점점 契丹 땅의 풍경 묘사에 대해 조금은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한편, 契丹에 대한 우월감을 비추기도 했다. 「過楊無敵廟」⁴¹⁾를 보자.

行祠寂寞寄關門, 적막한 사당에서 건다가 관문까지 이르렀는데
 野草猶知避血痕. 들풀은 되려 피의 흔적을 피할 줄 안다.
 一敗可憐非戰罪, 가엾지만 하나의 실패로 전쟁을 치른 죄가 없어지는 것
 은 아니다.
 太剛嗟獨畏人言. 너무 강직해서 단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두려울 뿐
 이다.
 馳驅本爲中原用, 말을 채찍질하여 달리는 것은 본래 中原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嘗享能令異域尊, 일찍이 이국 땅에서 이의 존귀함을 누릴 수 있었다.
 我欲比君周子隱, 나는 그대를 周子隱에 비하고자 하니,
 誅彤聊足慰忠魂. 司馬彤을 죽이면 충성혼을 위로하기에 충분하리.

宋初에 燕雲16주를 다시 수복하는 전쟁 중에 楊業이라는 영웅이 나타났는데, 일찍이 雁門關에서 크게 다쳐 상처를 많이 입었고, 결국 契丹에게 체포되어 죽었다. 楊業의 용맹스러운 희생은 漢人의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契丹의 존경심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직접 그 옛 전쟁터를 지나면서 燕雲16주를 회복했었던 지난 날을 회고하며 우월감을 내비추기도 하였고, 동시에 지금은 다시 契丹 땅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쓸쓸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한편, 中京의 남쪽, 奚人들이 모여사는 곳을 지나게 되면서 다시 契丹에 대한 거부감, 奚人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出山」⁴²⁾을 보자.

41) (宋) 蘇轍著, 曾棗莊·馬德富點校: 『樂城集』卷十六, 『過楊無敵廟』,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397쪽.

42) (宋) 蘇轍著, 曾棗莊·馬德富點校: 『樂城集』卷十六, 『出山』,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397쪽.

燕疆不過古北關, 연나라 변경은 古北口를 넘어 가지 않고
 連山漸少多平田. 연이은 산들이 점점 적어지고 평탄한 밭들이 많아진다.
 奚人自作草屋住, 奚人은 띠 풀로 스스로 만든 집에서 살고,
 契丹駢車依水泉. 契丹의 쌍마 마차는 물길을 따라 움직인다.
 橐駝羊馬散川谷, 낙타, 양, 말이 계곡과 산골짜기에 흩어져 있고,
 草枯水盡時一遷. 풀이 마르고 물이 마를 때 한 번씩 돌아온다.
 漢人何年被流徙, 漢人이 어느 해에 유배되었는지,
 衣服漸變存語言. 옷은 점점 변해가는데 언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구나
 力耕分獲世爲客, 열심히 경작하여 세상을 손님으로 삼고,
 賦役稀少聊偷安. 조세와 부역이 드물고 안정을 도모한다
 漢奚單弱契丹橫, 漢人과 奚人은 외롭고 힘이 약해 契丹의 횡포 속에 있
 고
 目視漢使心淒然. 직접 눈으로 漢人을 보니 마음이 淒然해진다.
 石塘竊位不傳子, 石塘은 관위를 질취하여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遺患燕薊逾百年. 燕과 薊에 100년이 넘게 우환을 남겼다.
 仰頭呼天問何罪, 고개를 들어 하늘을 부르짖으며 무슨 죄가 있는지 묻고
 自恨遠祖從祿山. 조상이 안록산을 따르는 것을 한스러워한다.

이 시에서 契丹의 풍토와 사람들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燕山을 지나오자 풍습과 문화가 漢人들이 모여 사는 곳과 현저히 달랐다. 漢人과 中京의 남쪽 지역에 흩어져 사는 奚人⁴³⁾은 契丹의 통치를 받았다. 契丹이 통치한 지역은 당시 매우 황량했고, 어떤 곳은 거의 초목이 자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古北口를 지나면서 험준한 산이 점차 줄어들고 평지가 연이어 있으면서 여러 민족 백성들이 모두 안락하게 거주하고 있음을 묘사하였다. 이곳에 中原의 사람들을 유배를 보내도 부역이 거의 없으며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썼다. 여기서 契丹에서 여러 민족이 서로 어울려 사는 것을 비교적 평화롭게 묘사하였다. 이 작품의 전체에서 契丹의 땅에서 지내고 있는 奚人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미 그들이 契丹의 복장을 하고 있어서, 契丹의 복속되어 버린 것처럼 보인다고 썼다. 작자는 옛 中原의 땅이 이

43) 奚는 唐 天祐 3년(906), 契丹에게 정복당했다. 遼 太祖가 奚의 왕명을 유지하였으며, 조정에 奚王府를 두기도 하였다.

민족의 땅으로 변했고, 언어까지 변했으며, 복장 문화까지 바뀐 이 모습을 보자하니, 이로 인한 상실을 ‘淒然’한 마음이 든다고 표현하고 있다. 燕山과 古北口는 宋 사람들에게는 북방 이민족에게 빼앗겨버린 잃어버린 옛 땅이라 할 수 있다. 古北口는 燕山산맥에 위치하여 지세가 험난하여 예로부터 幽燕지역의 요충지였으며, 五代부터 宋까지 中原과 契丹이 이 지역에서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고, 後梁 李存勖이 幽州를 공략할 때 바로 이 古北口에서 돌과구를 열었다. 이 지역을 통제하면 燕雲16주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燕山과 古北口는 宋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군사, 정치적인 지역일 뿐만 아니라 깊은 고향이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작자는 첫마디에서 ‘燕疆不過古北關(연나라 변경은 古北口를 넘어 가지 않고)’라고 말했다. 이어 두 문장은 契丹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초가집을 짓고 수레에 의지하는 유목 생활을 묘사하고 있는데, 契丹의 이런 원시적인 생활양식에 대한 경멸을 드러내기도 했다. 마지막 네 문장은 契丹에서의 奚人들의 생활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옷차림새는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언어를 보존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사신이 온 것에 대해 감개무량한 마음을 드러낸 것 등, 奚인들이 契丹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에 대한 작자의 아픔을 나타내었다. 「奚君」과 「木葉山」에서도 契丹 사람들의 생활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문명국의 우월감과 멸시의 눈으로 쓴 것이 있긴 하지만, 북방의 민속 풍모를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기에 사료로서 의의가 있기도 하다. 이어서 惠州에 다다른 후 쓴 「惠州」⁴⁴⁾를 보자.

孤城千室閉重關, 고독한 성 천개의 방 성곽의 문도 굳게 닫혔고
 蒼莽平川絕四鄰. 끝없이 펼쳐져 있는 평야에 사방의 이웃이 끊어졌다.
 漢使塵來空極目, 漢의 사신이 먼지를 날리며 왔는데 지극히 바라봐주는
 눈이 없고,
 沙場雪重欲無春. 모래사장엔 눈이 많이 쌓였으니 봄을 생각하지 않는다.

44) (宋) 蘇轍著, 曾棗莊·馬德富點校: 『樂城集』卷十六, 『惠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398쪽.

羞歸應有李都尉, 부끄러워 돌아가니 李都尉가 응당 있어야 하고
 念舊可憐徐舍人. 과거에 徐舍人을 불쌍히 여겼던 것을 생각해본다.
 會逐單於渭橋下, 홀로 渭橋의 아래를 뒤따라가며 있을 것이고,
 歡呼齊拜屬車塵.⁴⁵⁾ 환호성을 지르고 가지런히 절을 하여 먼지를 일으키
 며 가는 수레를 따르네

이 시의 부제에서 ‘傳聞南朝逃叛者多在其間(소문에 의하면 南朝의 배반자들이 대부분 그 사이에 있다고 한다)’라고 썼다. 구절 전체에서 北宋이 북쪽의 땅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주고 있다. 즉, 北宋에서 뛰어난 문인과 무관을 배출하여 잃어버린 옛 땅을 다시 탈환하고, 포로를 바쳐 백성을 구하고, 大國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썼다. 이처럼 대부분의 문인들이 使行길에 쓴 시에서는 契丹과의 정치적 군사적 분쟁을 다루고, 이를 통해 애국주의 정서를 담았는데, 蘇轍이 대부분의 문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쓰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契丹 사람을 만난 후 인식이 조금은 변한 것을 느낄 수 있는 「虜帳」⁴⁶⁾을 보자.

虜帳冬住沙陀中, 거란 장수들은 겨울에 沙陀에서 살고
 索羊織葦稱行宮. 양을 묶고 갈대를 엮어 행궁이라고 부른다.
 從官星散依冢阜, 官星山에서 冢山을 따라가고
 氈廬窟室欺霜風. 氈廬窟에서 서리 바람이 괴롭혔다.
 春梁煮雪安得飽, 쌀을 찜고 눈을 끓여 먹으니 어찌 배가 부르리
 擊兔射鹿誇強雄. 토끼를 잡고 사슴에게 활을 쏘아 강한 수컷임을 자랑하
 는구나
 朝廷經略窮海宇, 朝廷의 治國이 천하를 궁지로 몰아넣었고,
 歲遭繒絮消頑兇. 해마다 단단한 솜을 동여매어 완고한 흉악범을 없애 주
 었다.
 我來致命適寒苦, 나는 죽을 지경에 이르러 추위의 고통에 적응하여,

45) 宋 眞宗의 年号, 公元 1008-1016.

46) (宋) 蘇轍著, 曾棗莊·馬德富點校: 『樂城集』 卷十六, 『虜帳』,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399쪽.

積雪向日堅不融. 눈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였고 절대 녹지 않는구나
 聯翩歲旦有來使, 연이어 설을 설 때 어떤 사람이 사신으로 왔는데,
 屈指已復過奚封. 손가락을 꼽아 헤아리는 사이에 이미 돌아갔고 奚封을
 지났다.

禮成即日卷廬帳, 의례가 끝나 그날 곧장 장막을 걷어 올리고
 釣魚射鵝滄海東. 물고기를 잡고 거위를 사냥하는 滄海의 동쪽
 秋山旣罷復來此, 가을 산은 이미 지나갔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니
 往返歲歲如旋蓬. 해마다 돌아오는 것이 마치 쭉이 돌아오는 것 같다.
 彎弓射獵本天性, 활을 구부려 사냥하는 것은 천성이며,
 拱手朝會愁心胸. 공수하고 조회에 나아가니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하다.
 甘心五餌墮吾術, 기꺼이 五餌로 나의 술수에 빠졌고,
 勢類畜鳥遊樊籠. 힘이 썩 가축 무리와 새가 새장에 있다.
 祥符聖人會天意, 祥符 의 聖人은 하늘의 뜻에 따르겠다 하는데
 至今燕趙常耕農. 지금까지 燕과 趙는 늘 농사를 지었다.
 爾曹飲食自謂得, 너희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스스로 얻을 수 있다 말하
 니,
 豈識圖霸先和戎! 霸者를 도모하려면 和戎를 먼저 해야하는걸 어찌 알
 겠는가!

시 전체에서 遼에서 契丹 사람과 접촉 후 양국에 대한 관계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中原과 비교했을 때 契丹은 문화가 낙후되었고, 생활도 열악하다고 보았고, 작자 본인이 中原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우월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기본적으로 처음 가졌던 輕視의 마음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契丹 사람들이 힘이 썩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먼저 契丹 사람의 일상 장면을 썼는데, 출사 전에 썼던 契丹 사람의 생활보다 묘사가 더 세밀하고 사실적이어서, 그전에 상상해서 그린 장면과는 확연히 달랐다. 구절마다 契丹 사람의 원시적 생활양식에 대한 경멸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契丹 사람이 사냥하는 광경을 보고 契丹 사람의 용맹한 면을 아낌없이 칭찬하며 ‘擊寇射鹿誇強雄(토끼를 잡고 사슴에게 활을 쏘아 강한 수컷임을 자랑하는구나)’, ‘彎弓射獵本天性(활을 구부려 사냥하는 것은 천성이며)’라고 하

면서 契丹 사람은 타고난 사냥꾼이자 전사라고 표현하였다. 漢人은 전쟁터에서 결코 필적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달은 것이다. 상대의 강함을 실감하자 작자는 잃어버린 옛 땅을 무력으로 탈환하겠다는 생각을 버림과 동시에 이른바 ‘五餌’가 더 이상 민족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 아님을 깨달았다. 따라서 그는 ‘朝廷經略窮海宇(朝廷의 治國이 천하를 궁지로 몰아넣었고)’라고 하면서 조정의 對遼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爾曹飲食自謂得, 豈識圖霸先和戎(너희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스스로 얻을 수 있다 말하니, 霸者를 도모하려면 和戎을 먼저 해야하는걸 어찌 알겠는가)’라고 말하며 和親의 방식이 한편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칭찬했다. 이 정책은 양국 간의 평화를 가져왔고, 燕趙의 땅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었다. 이 詩에서 작가는 遼에 대한 적대심을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양국이 ‘澶淵之盟’ 이후 이와 같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이어서 遼 道宗의 생신연에 참석한 후 남쪽으로 돌아오는 길에 쓴 「春日寄內」⁴⁷⁾를 보자.

春到燕山冰亦消, 봄이 되어 燕山의 얼음도 녹고,
歸驂迎日喜嫖姚. 마차를 몰고 돌아가 태양을 맞이하니 名將 霍去病이 기
 뻐하네
久行胡地生華發, 오랫동안 胡地에서 백발이 자라났고
初試東風脫敝貂. 처음으로 동풍이 불어 낡은 담비 가죽을 벗었다.
插髻小幡應正爾, 상투에 비녀를 꽂고 小幡⁴⁸⁾을 꽂는 것은 지금 마땅히
 해야하고
點盤生菜爲誰挑. 소반에 야채를 담는데 누구를 위해 고르는지
附書勤掃東園雪, 편지를 부치고 東園의 눈을 부지런히 청소하고,
到日青梅未滿條. 春日이 되었지만 푸른 매실이 아직은 가득 열리지 않았다.

47) (宋) 蘇轍著, 曾棗莊·馬德富點校: 『欒城集』 卷十六, 『春日寄內』,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400쪽.

48) 小幡: 입춘일에 하는 활동 중에 하나이다. 漢代 유행을 하기 시작한 일종의 풍습이다. 입춘일에 청묘신(靑苗神)에게 제사를 지낼 때, 화려한 비단을 잘라 작은 깃발(小幡)을 만들어서 머리에 꽂았다.

남쪽으로 돌아오는 길에 쓴 이 시에서는 따뜻한 情景만 가득하다. 더 이상 出使 전 「次韻子瞻相送使胡」에서 보았던 춥고 황량하며 멸시하는 부정적 인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蘇轍은 「奉使契丹二十八首」에서 使行길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그러면서 宋과 契丹의 관계, 契丹 사람들의 생활, 여행하는 것과 같은 마음, 역사가 남긴 문제 등 다양한 모습으로 契丹에 대한 감정을 드러냈다. 契丹에 대해 편견을 버리고 바라보았고 묘사하였다. 여전히 인종주의와 본질주의 색채가 충만하고 정치적으로는 적대시하는 태도가 남아 있었으며 문화적으로는 輕視 했지만 이와 동시에 ‘用夏變夷’⁴⁹⁾의 기개와 자만감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契丹의 天性⁵⁰⁾과 中原의 차이를 인정함과 동시에 宋과 契丹의 관계에서 宋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여겼는데, 이는 宋이 契丹와의 실제 관계에서 契丹보다 낮았다고 한 王安石의 契丹觀과 대조되는 점이기도 하다.⁵¹⁾

이렇듯 蘇轍이 契丹으로 가는 使行길에 쓴 「奉使契丹二十八首」를 통해 契丹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使行길의 경로를 따라 契丹의 정경을 생동감 있게 묘사한 동시에 분명히 풍경에는 변화가 없지만 작자의 인식과 감정에 따라 다르게 묘사하여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契丹을 춥고 처량하게 묘사를 했는데, 점차 따뜻하고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묘사해 나갔다. 동시에 여전히 문화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래도 점차 이해의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다. 契丹에 대해 마냥 부정적 인식 혹은 편견을 가졌다가 직접 보고 경험하여 이해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어쩌면 원래 객관적이고 實事求是를 추구하는 그의 성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契丹에 대해 긍정적으로

49) 하(夏)는 제하(諸夏), 고대 주(周)나라 때 제후국으로 봉한 지역을 아울러 말하는 표현으로 중국을 가리키며 여기서는 오랑캐에 반대되는 中原의 예의의 가르침, 교화를 의미한다. 중국 문명의 교화를 통해 오랑캐의 비문명적인 문화를 변화시킨다는 말이다.

50) (宋) 蘇轍著, 曾棗莊·馬德富點校: 『樂城集』卷四十二, 『北使還論北邊事札子五道』,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937쪽.

51) 李昌懋, 「党爭與蘇轍使遼詩文」, 『理論界』, 2021, 第10期.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이었던 감정을 삭제한 정도로 보인다.

이러한契丹에 대한 인식 변화의 결과로,使臣으로契丹에 다녀온 뒤,翰林學士로 재직시절時事를 논한 아홉 편의 劄子를 올렸는데, 그 중 다섯 편이北方 지역에 관한 제언을 한 것이었다. 바로「北使還論北邊事劄子五道」⁵²⁾이다. 이는蘇轍이 올린 여러奏議文 중蘇轍이使臣으로契丹에 다녀온 후,契丹에 대해서 그전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올린 劄子였다.契丹에 가기 전 무조건적인 편견에서 탈피하여,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으로宋과契丹과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문제 및 북방 이민족들에 대해 현실적인 여러 정치적 제언을 하였다.⁵³⁾

52) (宋)蘇轍著,曾棗莊·馬德富點校:『欒城集』卷四十二,『北使還論北邊事劄子五道』,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9,937쪽.

53) 「北使還論北邊事劄子五道」중 其一에서 ‘論北朝所見於朝廷不便事’라는 부제를 써서 ‘북쪽 경계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일(北界兩事)’의 사례로北宋의 동전과宋 文人の文集이遼境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일에 관해 논했다.蘇轍이 생각하기에宋 文人の文集이遼境에 퍼지는 것에 대해서 ‘조정 득실, 군과 나라의 이해를 말하는 것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小人은 우매하고 이익만 중시하며, 음란한 말을 인쇄하는 것은 어디나 다 한다. 만약 모든 것을 북계에 퍼뜨리면 위로는 기밀을 누설하고, 아래로는夷狄의 비웃음을 살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극도로 불편해 질 것이다(言朝廷得失軍國利害,蓋不爲少.兼小民愚陋,惟利是視.印行戲藝之語,無所不至.若使盡得流傳北界,上則泄漏機密,下則取笑夷狄,皆極不便)’고 여겼다. 이러한 나쁜 방면으로의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蘇轍이 제시한 해결 방안은 ‘백성들이 제멋대로 문자를 인쇄하는 것을 금하며, 민간에서 판본을 내려고 할 때마다 우선 본인이 소속된 주에 신청을 하고, 문서관 두명을 뽑아, 문자의 양과 내용을 상세히 살피게 하고, 어긴 점이 없어야 비로소 발행할 수 있다.(惟是禁民不得擅開板印行文字,令民間每欲開板,先具本申所屬州,爲選有文學官二員,据文字多少立限看詳定奪,不犯上件事節,方得開行)’라고 하며北宋 전역에서 출판 심사를 실시하는 것이었다.蘇轍은契丹과의 문화교류의 방면에서契丹측이 ‘강성적 수요(剛性需求)’라고 인식했는데, 일단 민간에 유통이 되어버리면 이런 상황을 규제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깨달았고,契丹의 ‘天性’에 대한 인식과契丹에 대한 방비와 두려움 정서, 그리고 문화에 있어 보수적인 자만감 등의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넘지 못하고 ‘미세한 방지(防微杜漸)’를 건의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문집의 발간이라는 ‘생산(生産)’의 단계에서 통제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北使還論北邊事劄子五道」其二에서는 ‘論北朝政事大略’라는 부제를 써서蘇轍이契丹의道宗을 만나고 와서 직접 느낀宋에 대한道宗의 정치적 태도를 서술했는데,道宗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여 썼다. 이 편에서는契丹을 적국이

4. 결론

본고에서는 北宋의 文人이자 政治家였던 蘇轍이 生辰使로 契丹에 가는 동안 使行길에서 남긴 「奉使契丹二十八首」를 통해 契丹에 대한 蘇轍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에 더해 契丹에 가기 전에 蘇轍이 쓴 문장과 다녀와서 남긴 문장을 비교해보니 使行길에 오르기 전 蘇轍은 契丹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기보다 되려 輕視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후 使行길에 남긴 「奉使契丹二十八首」에서는 契丹에 대해 두려움이나 輕視의 태도는 보이지 않고, 점차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다시 北宋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훨씬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 정치적 제언을 하였다. 이렇게 처음에는 契丹에 대해 멸시의 태도를 보이다가 직접 契丹에 가서 보고 겪으니 이해의 태도를 보이게 되었고, 北宋으로 돌아와서는 이해에서 더 나아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契丹에 대한 실용적인 정치적 제언으로 이어졌다. 이후 蘇轍이 정치적으로 힘을 잃게 되면서 실제 시행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당시 영향력 있던 문인이자 정치가였던 蘇轍이 契丹에 대해 부정적이지만은 않았고, 인식에 조금이나마 변화를 보였고, 정치적인 제언을 한 것으로도 충분히 의의가 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더 나아가 다른 문인들 혹은 다른 시기, 북방 다른 이민족에게는 어떠한 시각을 가졌는지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라 이해관계의 태도에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北使還論北邊事劄子五道」其三「其乞罷人從內親從官」라는 부제를 썼고, 契丹의 親從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北使還論北邊事劄子五道」其四「乞隨行差常用大車」라고 부제를 썼고, 契丹에서 본 수레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北使還論北邊事劄子五道」其五「乞立差馬及駝日限」라고 부제를 썼고, 契丹에서 본 말과 낙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듯 총 5편에서 모두 직접 겪은 契丹의 모습을 토대로 정치적 제언을 하였다.

參考文獻

- (宋)李燾撰, 上海師範大學古籍整理研究所·華東師範大學古籍整理研究所點校, 『續資治通鑒長編』, 北京:中華書局, 2004.
- (宋)蘇轍著, 曾棗莊·馬德富點校, 『欒城集』,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9.
- (宋)蘇轍撰, 『龍川略志』, 北京:中華書局, 1997.
- (宋)蘇軾撰, (清)王文誥輯注, 孔凡禮點校: 『蘇軾詩集』, 北京:中華書局, 1982.
- (元)脫脫等撰, 中華書局編輯部點校, 『宋史』, 北京:中華書局, 1985.
- 孔凡禮, 『三蘇年譜』, 北京:北京古籍出版社, 2004.
- 趙永春輯注, 『奉使遼金行程錄』, 北京:商務印書館, 2017.
- 曾棗莊, 『蘇轍年譜』, 成都:巴蜀書社, 2018.
- 曾棗莊、劉琳主編, 『全宋文』, 上海:上海辭書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 2006.
- 김인희, 『움직이는 국가, 거란-거란의 통치전략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20.
- 김학주, 『중국의 북송시대』, 신아사, 2018.
- 이계지 지음, 나영남·조복현 옮김, 『정복 왕조의 출현: 요·금의 역사』, 2014.
- 첵후이 지음, 권소연·안병우·이민기 옮김, 『거란, 잊혀진 유목제국 이야기』, 도서출판 네오, 2018.
- 광쉐평, 『중국동북민족 관계사』, 서울:대륙연구소, 1991.
- 楊靜, 『北宋使遼詩研究』, 南京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3.
- 張秀賢, 『蘇轍散文研究』, 北京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22.
- 郜玉樂, 「兩宋翰林學士出任外交使節研究」,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0.
- 董碧娜, 「宋使臣出使詩研究」, 陝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7.
- 劉存明, 「北宋使北詩研究」, 青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6.
- 方麗萍, 「北宋出使文學中的人文地理問題及其文化特徵」, 學術論壇, 2018.

- 曹顯征, 「遼宋交聘制度研究」, 中央民族大學博士學位論文, 2006.
- 陳大遠, 「兩宋出使遼金詩闡論」, 北方論叢, 2012.
- 陳大遠, 「論宋代“出使文學”」, 學術交流, 2017.
- 陳大遠, 「宋代出使文學研究」,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2014.
- 런리웨이, 「천고의 역로 문화 추적 - 중국 북송(宋) 사요시(使遼詩)에 나타난 지리 문화에 관한 고찰」, 慶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人文論叢 Vol.24 No.-, 2009.
- 류영표, 「王安石 奉使詩의 爭點考: 契丹(遼) 境內에서 제작된 시를 중심으로」, 한국중국어문학회, 中國文學 Vol.49 No.-, 2006.
- 류영표, 「중국 시가의 전통과 변용:王安石“奉使詩”考辨 - 誤解爲奉使詩의詩」, 中國語文研究會, 中國語文論叢 Vol.0 No.29, 2005.
- 박지훈, 「遼의 自國에 대한 인식과 중국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 제48집, 2013.12
- 박지훈, 「송요 간의 전쟁과 和議 - 澶淵의 전역과 맹약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東北亞歷史論叢 Vol.- No.34, 2011.
- 유영표, 「蘇頌使遼詩〈和國信張宗益少卿過潭州朝拜信武殿〉校釋」, 대한중국학회, 중국학 Vol.31 No.-, 2008.
- 이근명, 「왕안석의 집권과 신법의 시행」,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 Vol.35 No.-, 2010.
- 이근명, 「11세기 중반 宋遼間 국경 분쟁과 北宋 政界」, 동양사학회, 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학술대회자료, 東洋史學會 2016年 春季研究發表會, 2016.04.
- 이석현, 「전연의 盟의 성립과 宋人의 認識」, 동북아역사논총. 2009. 10.

Abstract

Su Zhe's Cognition of Khitan Based on the Analysis of Su Zhe's "Twenty-eight Poems of Envoys to Qidan"

Jang, Su Hyun

This paper attempts to thoroughly explore Korea's position and Su Zhe's understanding of Qidan through analysing the "Twenty-eight Poems of Envoys to Qidan" left by him. Su Zhe is a scholar and politician in the northern Song Dynasty en route to Qidan to explore the external views and his personal perceptions . Therefore, this study systematically reviews and compares the data of Su Zhe's articles before and after returning to Qidan, aiming to reveal the position of the north area on the national Qidan.

Significantly, with a possible explanation from the "Twenty-eight Poems of Envoys to Qidan" analysis, it is found that Su Zhe showed contempt rather than fear towards Qidan without previous instance. Yet, It's shows a gradual attitude of objective understanding upon a lived experience. As a result, Su Zhe's intentionality of Qidan, exposed to reveal deviate from contempt to respect. Thus, lead to explore ways of coexistence in understanding by proposing realistic and practical political suggestions.

Key words : Su Zhe, Northern Song Dynasty, Qidan, ambassador, a poem of ambassador

투 고 일 : 2023. 1. 10. / 심 사 일 : 2023. 1. 15.~ 2023. 2. 15. / 게재확정일 : 2023. 2. 20.
--